

크레인만으로 한계... 8만t 인양 가능한 '플로팅 도크' 관심

세월호 중량·화물·평형수 등 총무게 1만t 이상
바지선에 올리기 장담 못해... 선체 절단도 거론
시신 훼손 우려 속 인양 시점도 신중히 고려해야
정부 "실종자 가족 의견 듣고 작업 결정하겠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이 지나면서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실종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10일이 지나면서 시신 훼손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인양 시점도 고려해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세월호 인양은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 인근에는 인양에 참여할 9000t급 실악호 등 다섯 대의 크레인이 도착해 작업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만t가량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는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가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관심을 얻고 있다.

기존에는 침몰 선박을 인양할 때 대형 크레인이 체인으로 선박을 물 위까지 들어올린 후 밑바닥이 편평한 화물 운반선인 바지(barge)선에 올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명량대첩이 있었던 울돌목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두 번째로 빠른 맹골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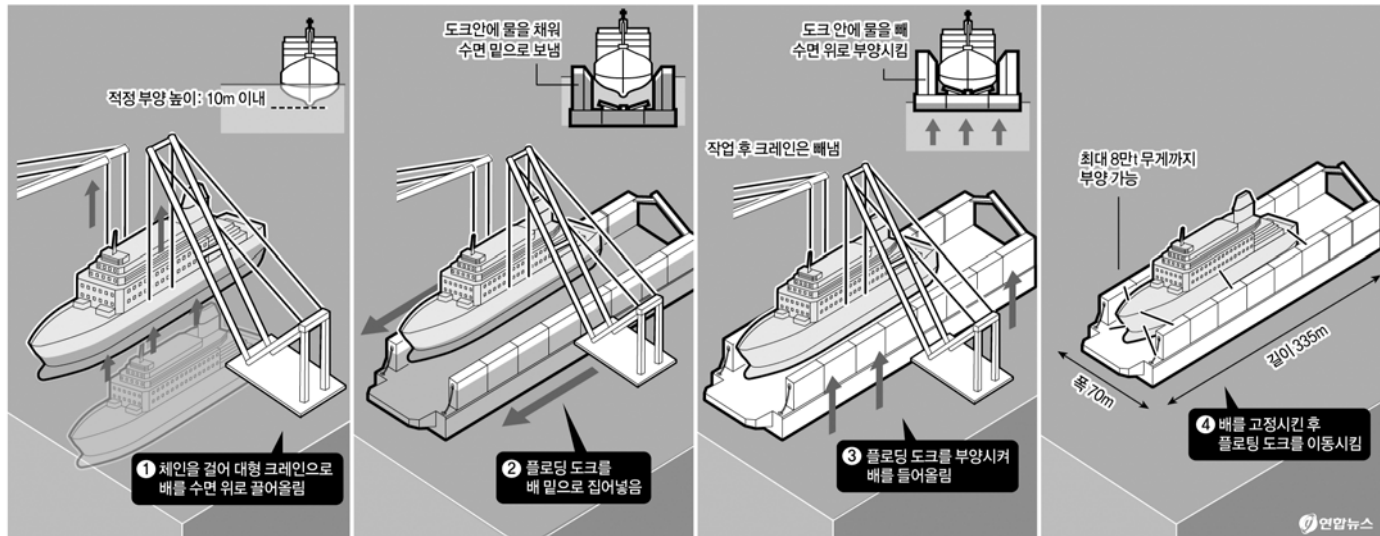
에서 1만t에 육박하는 세월호를 바지선에 올리는 것은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순홍 KAIST(한국과학기술원) 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플로팅 도크 방식이 해외에서도 선박 인양에 쓰이고, 8만t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만큼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며 "세월호가 배 자체 중량(6113t)과 화물 및 승객 기준중량(1070t), 평형수와 연료(1700t)를 합하면 약 1만t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크레인 인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팅 도크는 'ㄷ'자 모양의 설비 안에 물을 채운 뒤 선박을 조립할 수 있는 구조물이다. 이를 활용하면 침몰한 선박을 수면 위로 높이 들어올릴 필요 없이 플로팅 도크에 놓을 수 있을 만큼만 인양하면 된다. 커다란 삼으로 선박과 물을 함께 퍼올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플로팅 도크를 활용해 선박을 인양한 사례는 없다.

일부에서는 대형 크레인 다섯 대가 작업 중 균형을 잃을 수도 있고, 빠른 조류로 인해

플로팅도크 이용한 인양 어떻게 하나?



인양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양 전문가들은 지난 2010년 두 동강난 채 침몰한 천안함처럼 선체를 절단해 끌어올리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은 두 동강 난 선체를 2200t 크레인으로 인양까지 각각 21일, 30일이 소요됐다. 세월호와 비슷한 규모로 지난 2009년 침몰한 7900t급 아리아케호는 선체를 절단해 인양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체 절단 기술을 보유한 해외업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영종대교 건설 때 활용됐으며 일반 크레인보다 비용과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스트랜드 잭(Strand Jack)을 중국 등에서 미리 임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전남 여객선 23척 선령 20년 넘어 주영순 의원 "25%가 노후"

세월호 참사로 국내 여객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연안여객선 4척 중 1척은 건조된 지 2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연안여객선 현황(2013년 말 기준)'에 따르면 목포항(66척)과 여수항(25척)에서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은 모두 91척이며, 이중 선령이 20년 이상인 선박은 전체 25%가량인 23척이었다.

가장 오래된 선박은 '남해스타'(목포항)와 '평화해리3호'(여수항)로 목포~홍도와 녹동~동송 항로를 각각 운항하고 있으며, 선령은 25년(1989년 건조)이었다.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객선의 기본 선령은 20년이지만 이후 해마다 정기검사를 받아 1년씩 연장, 최대 25년까지 선령을 늘릴 수 있다. 이후에도 매년 정기검사 외에 철강 피로도 검사, 선박관리평가 등을 받아 다시 5년을 늘려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여객선의 기본 선령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6일 침몰된 여객선 세월호의 해운사인 청해진해운이 운영하고 있는 전남 지역 여객선은 여수~거문도를 운항하는 '오가고' 1척이며, 이 배는 지난 1995년 건조돼 19년째 운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 여객선의 기본 선령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기본 선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24일 오전 진도군 병풍도 세월호 침몰 해상을 찾아 수색 상황을 보고 있다. 뒤로 대형 해상크레인이 보인다. /연합뉴스

안보고 안먹고 안쓰고... TV앞에 멍춘 사람들

지역민들 우울한 일상
여가 선용 할애 시간 확 줄어
영화 관객·백화점 고객 감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지역민들의 일상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TV로 사고 뉴스를 접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신 문화생활 등 여가선용에 할애하는 시간은 줄었다.

24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 직전인 10일부터 16일까지 광주 및 전남에서 극장을 찾은 관객 수는 11만2969명(광주 8만20명, 전남 3만949명)이었다. 하지만 사고 직후인 17일부터 23일까지의 관객 수는 8만9133명(광주 6만4816

명, 전남 2만4317명)으로 21% 가량이 줄었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의 일일 평균 방문자 수도 사고 이후 10% 가까이 하락했다.

광주터미널 옆에 위치한 유입인구가 많은 광주신세계백화점의 매출과 고객 수도 감소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사고 전주 주말(11~13일)과 비교해 사고 이후 주말(18~20일)엔 매출이 10% 가량 떨어져, 고객 수도 비슷하게 감소한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반면, TV 뉴스로 사고 소식을 접하는 사람은 늘었다.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전 1주일(9~15일)의 하루 평균 시청률은 33.2%였으나 사고 당일인 16일부터 22일까지의 시청률은 36%로, 2.8%포인트 상승했다. 방송사마다 뉴스특보를 잇따라 내보내면서 평일 뉴스 시청률도 전주보다 4%포인트 가량 올랐다.

공연계도 애도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잇따라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

오는 5월2일부터 사흘간 광주문화예술포에서 공연 예정이었던 뮤지컬 '설복홀츠'가 취소됐고, 24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정기공연도 5월9일 광주시립합창단의 정기공연도 무대에 오르지 않는다. 또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계획했던 '찾아가는 예술단' 행사도 15회가 중단된다.

공연이 열리는 경우 애도사와 조곡을 연주한다. 25일 정기공연을 하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은 공연에 앞서 관객과 함께 세월호 사망자를 위한 묵념과 애도사를 한 뒤, 공연 말미 추모곡을 따로 연주할 예정이다.

지역민들 우울한 일상
여가 선용 할애 시간 확 줄어
영화 관객·백화점 고객 감소

'형제의 나라' 터키인 자원봉사 동참
○...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진도로 몰리는 자원봉사자들 중 '형제의 나라' 터키 출신 외국인도 합류.
○... 서울에서 터키 식당을 운영하는 4명의 터키인은 24일 오전 진도군 실내체육관 앞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형제의 나라 터키'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케밥' 음식 자원봉사를 실시.
○...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한국인 남성은 "10년 이상 한국에서 살아온 터키사람들"이라며 "케밥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왔다"고 설명.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그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고송
선거차량
UCC로고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

NAVER 검색엔진에 단비플라워를 추천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중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관리소장 채용공고

① 단 지 명 : 금호주택단지
② 소 재 지 : 광양시 금호동 희망길 12-14
③ 단 지 현 황 : 5,247세대
④ 자격조건
① 주택관리사로서 시특별교육수료한 자 (소방안전관리 등 공동주택관리 자격증 보유자 우대)
② 40세이상 ~ 55세미만
③ 500세대이상 3년이상 관리소장 실무경험자
⑤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주택관리사자격증사본, 시특별교육수료증사본, 기타서류(자격증사본)
⑥ 제출처 및 기한 (방문접수)
① 제 출 처 : 광양시 금호동 희망길 12-14 제철회관 311호
② 제출기간 : 2014년 4월 30일(수) 17시까지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⑦ 채용방법
① 1차 : 서류심사
② 2차 : 인사위원회 면접
③ 3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⑧ 문의전화 : 061)799-1631 ~ 5

광양제철주택관리소